



한약 포장 규격화 필요성

The Need of Oriental Drugs Packaging

박상표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 과장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은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약하는 의약품이다.

과거에는 한약의 품질이나 등급 약효 등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순전히 한의사에게 집중되어 한약의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인 한의사가 제시하는 채취·재배·가공·보관 등에 대한 기준과 조건, 권위와 요구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의사의 권능과 역할이 분화되고 약보다 의료에 더 집중하게 됨에 따라 한약에 대한 한의사의 접근과 감수성이 옛날 같지 않게 되었다. 그 틈새를 메우는 것이 한약의 재배·제조·도매의 단계별 직능별 업체 혹은 전문가들이다. 또한 한약의 선택도 주관적인 가치와 판단이 아니고 한약의 표시와 포장으로 한약의 품질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약의 재배기술, 제조공정, 품질기준, 유통 인프라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한약의 포장에 대한 분야이다.

주로 천연물 상태에서 단순 가공(세척 절단 등)하여 사용되는 한약의 경우에는 품목별 특성들이 다양하고 형태와 물성, 품질과 등급 등에 따라 취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양약의 약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약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① 품질의 특수성 - 아직도 관능검사로 품질판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많으며 ② 기원의 특수성 - 유사한 식물의 같은 약용부위에 대하여 기원 확인이 쉽지 않아서 위 품 유통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③ 생산의 특수성 - 야생 채취, 농가 재배, 가공(포제 포함) 및 한약제제의 복잡한 생산기술 등 한약의 생산과정이 복잡 다양하고 ④ 유통의 특수성 - 그상품의 시간적 / 지역적 제한성이 강하여 당년생, 다년생, 채취시기에 따른 계절성 품종들이 많아 수확의 흥풍(凶豊)과 출하시기, 재배지역에 따라 품질차이와 가격차이 형성되고 ⑤ 소비의 특수성 - 같은 한약이라도 응용 시에는 한방원리에 의해 변증시치에 따라야 하고, 사람과 질병에 따라 다르고, 병증에 따라 용약원칙

이 있으므로 사용목적과 치료목표에 맞는 수치·법제를 거쳐야 한약 고유의 사용가치를 발휘하는 등의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한약의 포장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 내용물의 보관·유지와 이동의 안전성 등을 충족하는 개념에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먼저 한약 포장의 재질에 있어서 보관·이동의 편이성, 보존성 등의 기본적인 측면외에 한약 중에는 향기(냄새)가 품질과 효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향기의 유출을 방지하고 반복하여 개봉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향기를 최소화하는 포장의 재질과 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변질이 잘 될 수 있는 한약의 경우에는 밖에서 내용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장을 해 주어야 한다.

사용 횟수나 분량이 많지 않은 한약의 경우에는 소분포장으로 사용과보관, 관리가 모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약 포장 규격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도 논의와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지난 달 1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한약재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조·공급업체에 준수를 요구하고 한약재 포장도 안전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번달 경 복지부, 식약청 등과 협의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규격품의 표준화를 위해 '한약재 표준제조 공정 지침'에는 한약재 제조업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으며 총 200개의 한약재 품목을 수록, 각 한약재의 채취부터 포장 단계까지의 단계별 공정을 기재하여 놓았다. 한의약육성법 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및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약재 제조업소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지침서는 한약재의 규격의 표준화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한약포장은 이제는 포장디자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품목별 약용부위별 특징에 대한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브랜드 개념을 담아내어야 하고, 위·변조의 차단을 위한 각종 표시기법과 이력관리, 추적관리 등을 적용함으로써 포장 개념을 한약의 신뢰와 가치 부분까지 접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약의 포장은 유통과 보관의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품질을 확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한약 포장의 발전을 통하여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훨씬 향상되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약의 수요가 창출되어 한약을 취급하는 모든 업계의 활성화를 기원한다. [K]